

# 한전 상반기 영업이익 5조9000억 달성에도 재무부담 여전

### 8분기 연속 흑자...205조 부채·국가 전력망 투자 등 재무 리스크 커 전력직접구매제 도입에 '탈한전' 압박 지속...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올 상반기 기준 5조 9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8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이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20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와 대규모 국가 전력망 투자, 누진제 완화, 전력 직접구매제 도입에 따른 수익 감소 등 재무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부담으로 지적된다.

12일 한전이 공시한 '2025년 상반기 결산 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전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조 88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조 3399억원(131%) 증가한 수준으로 분기별로 1분기 3조 7536억원, 2분기 2조 135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한전 매출액은 46조 174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5%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 판매 수익도 전기 판매량은 0.05% 감소했지만 판매 단가가

5.7% 상승하며 2조 4519억원 증가했다.

한전의 전기 판매 수익이 대폭 증가한 것은 국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 등이 하락하면서 한전이 발전 자료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계통한계가격(SMP)이 낮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전력 도매가격으로 불리는 SMP는 올 상반기 기준 1kWh(킬로와트시) 당 118.9원으로 1년 전보다 7.7% 하락했다.

또 전기생산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액화 천연가스(LNG) 가격도 올해 들어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연료비도 1조 5912억원 감소했다. 연료비 등 영업비용은 줄고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상승폭을 키웠다.

이로써 한전은 8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21년 라-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이어 2023년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영업이익의 상승 및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전의 잇따른 영업이익 기록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도 재무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이 여전히 28조 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 205조원의 총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전력 직접구매제 도입 등 재무구조 개선에 있어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다는 점에서도.

한전은 최근 배전망 연계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해 향후 5년간 10조 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분산에너지 적기 연계 구축과 전기사용자망 확충에 각각 2조원, 8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 여름(7-8월) 잇따른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많은 시기 주택용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누진제 완화를 수행함에 따라 여름 성수기 전력 수익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전력직접구매제 도입으로 대규모 전력 사용자인 기업의 '탈한전' 압박도 지속됨에 따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농어촌공사, 캄보디아에 채소 연구소 개소

### 채소 지급 기술·농업 다변화 결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함께 캄보디아 몬톨거리 지역에서 '산지 지역 고부가가치 채소 생산 및 가치사슬 개선 사업' 준공식과 '산지채소연구소' 개소식을 동시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응 코살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차관, 김원집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서기관, 유영숙 농식품부 주무관,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 등 양국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양 기관은 2010년부터 '쌀산업 일관 체계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캄보디아의 식량 주권 확립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10개의 국제 농업협력사업(ODA)을 진행해왔다. 공사는 이번 '산지

지역 고부가가치 채소 생산 및 가치사슬 개선 사업'이 캄보디아의 자체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산지채소연구소' 준공 및 개소와 함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운영계획도 수립했다. 한국의 비숙련 사력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산지채소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연간 예산안을 마련했다.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산지채소연구소가 캄보디아 농업 다변화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현재 캄보디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비즈니스 및 농촌공동체 개발센터 지원사업', '식량안보 정보시스템 3단계 협력사업' 등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aT, GIST와 손잡고 농식품 산업 디지털 혁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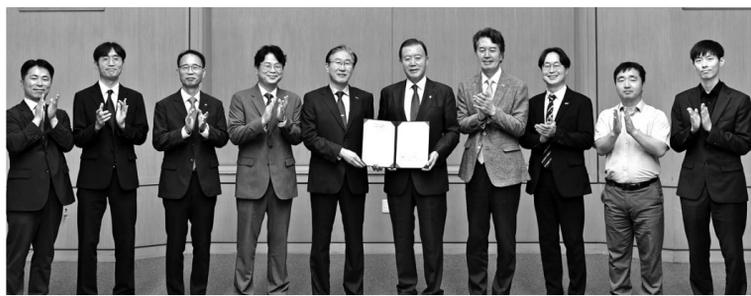
### 농식품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1일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농식품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식품 분야 빅데이터와 AI 모델 개발, AI와 데이터사이언스 인재 양성, 미래 신산업 과제 발굴과 인프라 공동 활용,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aT는 우수한 AI 분야 연구 역량을 갖춘 GIST와의 협약을 계기로, 농식품 분야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혁신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T는 급변하는 농산업 환경에 발맞춰 산업 전반에서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신산업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대한민국 AI 연구의 선도기관인 GIST와 함께 농식품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aT는 농업의 전후방

산업에 AI를 접목해 생산부터 유통·수출까지 전주기에 걸친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폭염에 치솟는 전력수요...전력 공급 '이상 무'

### 전력거래소 8월 11~17일 전망

### 8월 2주차 전력수요 전망 (단위:GW·%)

구분	8월 11~14일
공급능력	104.8~105.2
전력수요	88.8~90.6
예비력(예비율)	14.4~16.3(16.1~18.4)

이달 중순 전력 수요량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력당국은 추가로 확보해 둔 예비력을 통해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더라도 전력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1-17일) 전력 수요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둘째 주 평일 오후 4-5시께 최대 전력수요량이 97.8GW(기가와트)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기록했던 역대 최대 전력 수요량인 97.1GW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 전력 수요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전력 수요량은 평균 85GW를 기록하며, 기존에 동월 기준 최고치였던 2022년 7월 82GW를 넘어섰다.

전력 수요량이 급증한 것은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여름철 평균 기온이 지속 상승하면서 에어컨 등 냉방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잦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하락했지만, 점차 전력 수요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주간 수급실정 및 전망'에 따르면 8월 첫째 주(4-8일) 전력 수요량은 84.8-87.9GW를 기록했지만, 둘째 주(11-14일) 전망치는 88.8-90.6GW로 평균 2.7-4.0GW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수요량이 증가 추세지만 확보된 공급량이 104.8-105.2GW, 예비력은 14.6-16.3GW 수준으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력이 5.5GW보다 낮은 경우 전력수급 경보 중 '준비' 단계가 발령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전KDN, 베트남 하노이국립공과대와 사이버보안 강화 협력

### 우호적 산학협력 관계 구축

한전KDN은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베트남 하노이국립공과대학교와 '에너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재하고, 김민석 대한민국 국무총리와 또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등 양국 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진행된 '한

-베트남 비즈니스포럼' 관련 양국 간 업무협약' 참여를 통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상호 우호적인 산학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한국의 우수한 IT 기술력을 베트남의 인적 자원과 결합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양국 간 학술 및 산업 분야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아이디어 발굴, 사이버보안 분야의 인력 및 학술 교

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한국과 베트남 간 산학협력의 바람직한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며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 패러다임 속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모범 사례가 되고, 양국의 에너지산업 미래 선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등 동반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분할합병공고**

2025년 8월 12일 각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인테크(이하"갑")의 전기공사사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주식회사 대연이노텍(이하"을")과 분할합병("갑"의 전기공사사업부분의 권리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로부터 1개월내로 관제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주제위에서도 동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8월 13일

"갑" 주식회사 인테크  
대구광역시 동구 경안로 751, 2층(동호동) 대표이사 허민욱

"을" 주식회사 대연이노텍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파라다이스로 56, 810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비지니스) 사내이사 임진자

**주목성 뛰어난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화질 LED플라자 최고화질

-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출장로 입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